

故李灌鎔博士
意欲論
-意識의 根本事實로서-

金斗憲

前言. 故李灌鎔博士가 不歸의客이된지 於焉間 半星霜이지났습니다. 너무나 不意의凶變이엇을만큼 날이갈수록 哀悼의情이마지않습니다. 先生의人格은 넓히親知의敬慕하엿던바이엇거니와 朝鮮社會의思想界言論界 學術界等諸方面에 남기신功蹟은 또한不少한것이엇습니다. 그중에도 朝鮮哲學界의 先進이엇슴은 잊지못할일인가합니다. 이意欲論이라는著述은 일즉先生이海外에留學하실동안 螢雪의功을쌓으신成業의結晶입니다. 即瑞西國 「쥬-리히」大學에서이루신學位論文이엇습니다. 그後로 先生은哲學研究를發表하실機會를많이가지시지않엇슴은 우리의遺憾으로아는바입니다. 그러나恒常 學究의精神을尊尙하야 우리의 戒 좋은模範을보여주엇습니다. 近來에와서는 特히唯物史觀에많은關心을 가지섯는듯한대 그根據는 이心理學的研究에 多少胚胎하엿는듯도합니다. 이런點저런點으로보아서 이論著를理解함은 무엇보다先生을追憶하는좋은機緣이될가합니다. 나는 先生의哲學的見解 또는思想的傾向에 그대로追從하려고하지는않읍니다만은 平素에많은敎導를받엇는우에 일즉이貴重한著述을얻게된因緣으로 先生이가作故하신後는追憶과 깊은敬意를가지고熱讀하엿습니다. 이제 우리先輩의業蹟을讚揚하고 江湖諸賢과함께 追悼의뜻을남으고싶은생각이간절하야 그簡畧을 試하는바입니다. 論說에對하야는 一切批判的見解를畧하고 될수잇는 대로그本旨를그대로紹介하려합니다. 或時 잘못解釋됨이잇다면 오즉나의微力을謝할뿐입니다.

一. 序 論

여기에는문저 研究의對象을論講한것이니 氏는意志의本質에關한 現代의心理學說을 大畧二分할수잇다하야 이것을檢討하고 그歸着點을明白히하엿는것이엇다. 即그一은 異實發生說(die heterogenetische Willenstheorie)이니 그

것은意志를 感却의結合即表象에서나오는것이거나 또는表象에隨伴한複合感情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이요 그그는自動發生說(die autogenetische Willenstherie)이니 그것은 知나情에서나온것이아니라 意志그대로 나온것이라는 것이다.

A. 그러면果然 意欲(Das Wollen)을表象作用의 附屬現象이라고볼수있을것인가? 일즉 Herbart一派에依하면 精神의直接發現된것이 곧表象인데 이表象은精神의自己保存이요 또한모든意識現象의基礎가되는것이니 感情과意志는 곧그附隨現象에不過한것이라한다. 그리고 意欲은結局實行(Erfuellung)을前提로한欲望이라는것이다. 이러한見解는 일즉히 Protagoras 以來로 Locke, Condillac 등이 提唱한感覺論的見解에基礎한것이니 即感覺을心理現象의窮極的要素로삼은것임으로 意志란것도亦是感覺의結合에不過한것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이感覺의結合은 어떤「結果의豫想」(Antizipation des Endeffektes)을 떠날수없는것이니 이에意欲의本質은 반다시 目的表象을包含한다. 다시말하면 意欲은 知覺表象과 記憶表象을規定한것이요 모든 表象은感覺에서出發한것임으로 結局意欲은感覺의規定(Anordnung)인것이다. 이와가치 感覺또는表象을 根本삼어 意志의本質을解釋함으로 이것을氏는 對象說(die gegenstaendliche Willenstheorie)이라하였으니 이것은一般으로主知說에屬한것이겠다.

그러나 이見解는 氏에依하면 感情또는意志를 全然感覺의附屬現象이라하는 點에잇어서 誤謬을不免한것이라하는거싱요 本來意志活動은 衝動(der Triebe)의發展된것이라한다. 即衝動이 意欲을이르킨것이요 거기에感覺또는感情이從屬한것이라한다. 이衝動은 本來求快避苦의欲求를隨伴한것임으로 如何間感情이意欲에重要な意味를가지고잇는것만은明白한 것이다.

B. 이제그러면感情複合에從屬한 現象으로서의意欲은 어떠한것인가? Wundt는 情意 (Affekt)를 心根據로삼고 이것이곧意志過程을形成한것이라한다. 무릇動機없이는 意欲할수없는것이니 이執意動機는表象이아니라感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거기에는 表象을반드시隨伴한것이니 이에그것을感情要素로 말한다면 發作動機(Triebfeder)라하겠고 表象要素로본다면 運動根據(Bewegunggrund)라할수잇는것이다. 如何間 情意는意欲의根據가되는것이요 情意는또한感情없이이러날수없는 것이다.

要컨대 情意活動의經過에따라 表象內容과感情狀態가變遷하는데 意志行動이생긴다는것이니 그림으로意志의本色은 情意的弛緩過程에잇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意志過程은 快不快의方向에따라 努力또는反努力을이루고 一面으로 興奮과鎮靜 他面으로緊張과弛緩의狀態를 現出한다. 이와가치하야意欲은언데던지 感情活動과結合된것이라함으로 氏는이것을 主情說(die emotionale

Willens theorie)이라하였다. 이說은情意를 不可分離한要素로說明한點에잇어서 對象說보다一層나은見解라하겠으나 亦是意欲을 意志아닌 다른要素即感情의隨伴現象이라는點에 全然贊同할수없다하였다.

C. 이재 氏는意欲이란 것을 知와情에附屬되지안는 全然獨立한第一要素로서 說明하려하였다. 이見解는곳 主意說(die Voluntaristische Willenstheorie)인것임에틀림없으나 特히 氏는從來의 主意主義的見解와區別하기爲하여 「努力說」(die Conative Willenstheorie)이라하였다. 이見解는 일즉 Jodl의提唱한바인대 努力(Streben; Conari)을 意識의本質的現象으로삼고 그것은다른意識現象으로還元할 수 없는 心理的現實性이라하여 意欲은곳이努力의特殊形態라고보는 것이다. (S. 20.)

氏에依하면 意識이란 것을 要素의重合이라고보거나 또는努力을이러한要素集合의附隨現象이라고보는見解다. 그러하여感覺과感情은 이意識의受動性을낫타낸것이요 意識의能動性即主體의活動性은 心的生活의根本事實을이루는것인데 이發動性을表示한 것이 努力이라한다.

그러나努力은 意欲이아니다. 意欲은努力의 한作殊境遇이다. 그러면 努力은엇더케해야意欲이되는가? 大抵努力은 衝動의心理的根據다. 사람은모든生物과갓치 여러 가지生得的運動力을가지고잇스니 말하면사람은이러한衝動의組織體라고볼수잇는 것이다. 그리고이러한모든衝動은 結局自己存在의衝動이니 이것을心理的으로말한다면 純粹한努力이요 거기에漸次內容을엮게됨에따라 意欲으로發展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이衝動이刺戟에따라 漸次그滿足을엇기爲하여 快不快에感情과 密接한關係를이루고 또한求快避苦의活動을目標하여 目的의表象을形成하게된다. 그러나 感情또는表象은 決코意欲의本質이아니요 意識의主流活動이오즉意欲過程을 現出하는 것이다. 그리고이努力의過程은 求快避苦의衝動이 重要な役割을가진것임으로 感情은意欲의快定要素가되는 것이다. 普通熱情的人物이 強■한意志力을가참은 이러한까답이다.

이갓치하고 知情意는 結局意識의三位一體를形成하게된것이니 知情意는 自我의心的活動의三面인 것이다. 여기에잇서서 氏는近代心理學의主流이던 知情意의能力說을 打破하고 他面 Aristoteles의心身併行說에立脚하여 意識의根本事實을意欲에차지려하였는 것이다. 即意識은結局 知情意三要素의 不可分離한 通環活動이라하겠스나 意識의自發性 即自我의能動性的의根據는곳 努力의特殊相인意欲에잇다는것이요 따라서 知情意三要素中 意가그窮極的段階을이룬 것이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根本的見解를實驗과論理의二方面으로 究明하려하였는 것이다.

二. 實驗的研究

여기에 氏가 取한 實驗은 Feder-Ergograph라는 器械의 使用이다. 역지로 翻譯하자면 「彈機式 牽指力 測程器」라고 할만한 것이나 一般心理學 實驗上 「에르고그라푸」라고 通用한 것이다. 心理學 實驗에 多少 經驗이 있는 사람은 大概 알만한 것이로되 簡單하게 그 裝置를 說明한다면 그 끈의 一端엔 鍾을 달고 他端엔 이것을 中指에 걸어 中指의 屈伸에 따라 그 鍾달린 노끈을 잡아 다리는 同時에 이 牽指에 따라서 그 屈指의 形狀을 線으로 「카이모그라푸」에 나타내게 한 것이다. 이 線의 記錄은 全力을 다 해야 잡아 다릴 때는 完全한 幅이 나타내나 疲勞에 따라 次次 그 幅이 작어진다. 그림으로 普通 疲勞 經過를 實驗하는데 이 器械를 많이 使用한다. 그리고 이우에 「메트로노-口」(一定한 時間으로 똑딱々々 하는 器械)를 갖해 두고 이것에 맞추어서 잡아 다리게 한다. 이와 갖치 해야 線의 記錄은 한 波長을 이르게 되니 이것으로써 그 牽指의 數를 計算하고 또 그 線의 形狀으로 因하여 疲勞의 經過와 全力量을 調查할 수 있는 것이다. 大概 이러한 裝置를 하여 놓코서는 實驗을 ++ 始作하는데 直接 잡아 다린 사람을 實驗者라 하고 이것을 식힌 사람을 實驗指導者라 하면 指導者가 “Bald”라는 準備號數을 하는대로 實驗者는 노끈의 一端을 검어 쥐고 잡아 다릴 때는 準備號數이 없이 “Jetzt”라는 實行號數만 하는기로 實驗指導者와 實驗者의 間에 미리 約束을 하여 두는 것이다. 以上과 갖흔 裝置와 約束을 하고서 그 實驗의 結果를 一一히 記錄하고 또 實驗者의 體驗談을 들었는대 十六人의 實驗者에 對하여 百三十件을 어더 그中에 九十七件을 取하여 이것을 檢査하였는 것이다.

이러한 實驗으로 말하면 牽指運動에 不過한 것이로되 實은 全身全力의 運動을 要하는 것이요 더구나 準備號數을 聽取할 때는 實驗者는 全主意를 集中하여 準備의 態度를 取함으로 그 心理的 狀態는 아주 緊張하여 말하자면 斷息 狀態를 이르었다가 實行號數을 聽取하면 아주 弛緩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에 잇서서 그 意志 經過를 考察하려는 것인데 이제 그 實驗結果를 보건대 이 準備의 程度에 따라 牽指의 數에 差異가 있음은 아는 것이다. 實例를 들건대 實驗者 第五에 잇어서 準備號數을 한 後에 實行號數을 한 結果 牽指가 二九乃至 三〇인데 實行號數만 한 結果 三〇內地 三一의 牽數에 達하였다 한다. 그래야 實驗者의 體驗을 들으니 그는 이번엔 實行號數만 으로 號數하리라고 미리 準備하고 잇섯다 하였다. 또 一般 實驗結果를 通하여 注意할 만한 것은 兩號數을 다 할 때는 牽指의 結果를 指示하는 線이 大略 直線인데 實行號數만 한 結果는 曲線이 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疲勞 經過를 指示한 것이요 새로운 힘을 내어 牽指하려는 努力의 結果로 力量의 伸縮함에 따라 曲線을 이룬 것이라 한다.

이제 實驗者의 體驗談을 들건대 여러 가지로 陳述하는 中 氏는 이것을 大體로 三團에 分하였다. 第一團은 自己의 意志能力을 要하였다고 特殊한 意志力의 根據우에서 特指하였다고 생각하였다. 第二團은 實驗하는 동안 體驗한 意欲은 結局 活動

感情또는努力感情과恰似한것이라하였다. 그리고第三團은 意志體驗의本質的인 것을 實驗이附隨現象에不過하다하였다. 이러한區分은嚴密한것이아니라 尙弧交錯의關係를가진것이나 要컨대 意志過程은벌서準備號수를聽取하기前에나타난것이요 意欲의本質은「意志過程의實現」(Zustandkommen dos Willensvorganges)에잇다는 것을 氏는가장正當한見解라고보는 것이다.(S. 43)

이意志過程의實現이라함은 곧「生의狀態의變遷」을말한것인데 實驗者의體驗談을듯건대 實驗활동안 많이牽指하여야하겠다는 것 牽指의結果의記錄이規則的이라야되겠다는것等 牽指에關한暗暗한表象을가졌다함으로보아 벌서實驗을始作하기前에 또는實驗室에入室할때부터 如何間生의狀態의變遷을體驗하였던것이라하겠다. 그러는中에 準備號수를淸趣할때는 牽指하도록準備하여야하겠다는생각이 電光石火的으로이러난것인데 이것은곧 「純粹知」(reines Wissen) 또는 「直感的」(gefuehlsmaezig) 이라할만한것이니 여기에는注意가集中하고緊張한狀態라하여야말하자면內部的空虛(innere Leere)의狀態를形成하는 것이다. 萬若 이러한準備號수가없이實行號수만을하게될때에는 「오- 準備號수없이實行湖嶺만을할수가있다고指示하였다」는생각이 亦是電光的으로이러나 그때에는마치무엇에急速히襲擊當한것갓흔感을느끼게되야 牽指가多少急速히되는傾向을가지고잇다한다. 이實驗號수는 結局外部的行動에對한準備에不過한것이요 말하자면그前부터하여왔든 內部的準備의한發現에不過한 것이다. 이內面的體驗은 一方으로는見聞할수잇는形成物로 他方으로는思想으로現出한것이니 이形成物또는思想은 곧內部的準備를本質로삼은意欲의 附隨現象에不過한 것이다. 그러므로要컨대 이內部的準備(innere Bereitschaft)가 意志過程의實相을表示한것이니 이準備狀態를 氏는 感情的體驗(ein gefuehlsartiges Erleben) 또는純粹意識(ein reines Bewusstsein) 또는 純地積意識(ein rein intellektuelles Bewusstsein)이라고도할수잇다하였고 또知라는 것을 大商적과狀態的의二面으로分할수잇다면 이純粹意識은即狀態的의方面이라고볼수잇는것이라한다. (S. 51.)

如何間이러한準備狀態에잇어서는 活動感情과 緊張을體驗하게됨으로 이러한活動性質을 意欲의本質的인것이라고생각하기쉬우나 數次實驗을거듭한結果 그것에熟達하게되면 그다지緊張하지않고 다만生의變遷過程을體驗할뿐이니 이런點으로본다면 感情이란 것을 意欲의本質로삼을수없다는것이明瞭한 것이다. 그러나準備號수또는實行號수에依하여 새로운刺戟을받게됨에 거기에는그號수를聽取하는暫間 어떤생각例컨대牽指數 紀錄線 또는前에經驗하였던記憶 등의생각이 電光的으로이러나게됨으로 이제對象的作用이라는것을重要視하지

않으면안되게된다. 그럼으로 意志過程은 對象的作用(die gegenstaendliche Einwirkung)의體驗과過去體驗의再生(die Aufleben der vergangenen Erlebnisse)의二面의作用을包含한 것이다. (S. 59.) 이點에잇어서 實驗當初에 實驗者의게일러준約束指令의理解가 至極重要한意味를가는다.

이와갓치하야 氏의實驗的研究에는 自己省察(Selbstbeobachtung)即內省法이 中夭시된듯한대 要컨대 意欲의本質은 自我內部에잇는어떤特殊機能에依한것이아니라 生의狀態의變遷 換言하면自我全體의變動即 主體의意識變遷過程에 잇다는 것이다. 이에 過去現在未來는 곳自我意識의內附에包含된것이요 生의變動은 感情이나感覺에서찾을것이아니요 오즉 意欲에서찾을수잇을것이니 그것은 前二者가暫間的斷片의임에對하야後者即意欲은 繼續的永久的인갓답인 것이다. 이러한生의變動에잇어서 現存狀態로부터次他狀態로 옮겨가는機緣은 곳自我內部에서決定된것임으로 여기에自由란것을認知할수잇다한다. 다시말하면生의變動은 結局自己原因(Causa sui)에依한것임으로 自由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야 이러한意味에잇어서 氏는또한意欲의本質을現在의生의狀態에서 本來의그것으로變遷하여가는 意識生成(Bewusstwerden)이라고도하엿다.(S. 62.)

三. 理論的研究

以上에究명한바와갓치 知情意는三位一體가되야 不可分離의關係를가지고 意識을形成한것임으로 心理學的研究의根本的對象即 直接所與는 科學的止息으로써分離解剖치않은 意識體驗그대로인것이라야될 것이다. 다만自我意識의間斷없는連續과變動은 어떤對象에接할 때 注意를이르키게되는것이니 이注意는 곳意欲의本質을形成한것임은 이무말한바이다. 그러타고意欲이라는 것을 表象과自我와의關係라고볼수없는것이나 다만感情이란 것은 이러한關係에서나온 것이라고하갓다. 그리하야結局 純粹感却 純粹感情또는 純粹特續은 純粹意欲에볼수잇는 것이다. 換言하면 知情意의三面은 現實에잇어서 時間的으로 또는 空間的으로關係된것이아니라오즉自我의創造性에따라 變動하야마지않은意識의過程에不過한 것이다.

生은本來動하야마지않은것이요 努力또는作用을하는內部的渴望(inner Drang)을가지고잇다. 그럼으로 現存한그대로의狀態에잇으면 곳支離를늦기게되야 新刺戟에對한憧憬을갓게된다. 이러한生의欲求를充足시키기爲하야 여러가지對象的作用을 일으키게된다. 그러나 이對象的作用에依하야생긴表象은 獨立된것이아니요意慾에結合되여잇는것임은 이미말한바이어나와 意欲의主體는 이러한表象自體가아니요 表象을從屬한生의狀態(Lebenszustand)인것이다. 如何間 이러한根據에서생긴表象은 外部的으로身體運動에現出하고 內部的으로

心的變遷을이르키는것이요 또이表象의結合은 生의活動에依한것이니 그럼으로表象과 主體의狀態變化는 密接한相互關係를가지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主體의諸作用은 既往에體驗한對象的作用에依하여 決定된 것이다. 이러한意味에 있어서 氏는또한意欲이란것을 이와갓치定義할수있다고하였다. 卽 「過去行動의先鞭에依하여 種族과個人의生活過程에獲得한生活狀態의 再生의根據우에서 主體의生의動을意識함」(Das Bewusstwerden der subjektiven Lebensbetätigung auf Grund des Auflebens der im Lebenslaufelung. S.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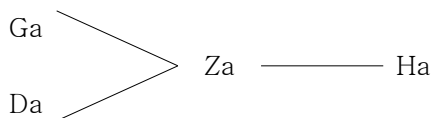
生의活動이意識生成이 이와같이됨에따라 感情體驗도또한分明하여진것이니 實驗할때에본마와같은 緊張狀態는 곳이感情의直接的發露인것이요 行動은또한여기에서出現한 것이다. 이런點에서 快樂主義-求快避苦에依하여 行動이決定된다는-原理는主張된 것이다. 그러나 許多한人間行爲는 例컨대 Socrates의飲毒基督의十字架 其他偉人烈士의죽엄은 이快樂主義原理로써 解釋할수없음은勿論이다. 그러면生의活動은標準이될價值있는것은무엇이나하면 그것은一大哲學的課題인것이니 結局氏는 生의活動의決定根據를 活動自身의本質 따라서一般事變의本質에求하고 또한人間活動의本質은 그根本이 本能과習慣에있다고하였다. 이런點으로보아 氏의哲學的見解는 反理想主義 現實主義라할만하며 또한 理論全體의傾向으로보아 行動主義(Behaviorism)의色彩濃厚함을 窺知할수있을가한다.

더욱氏의論述에依하면 모든行動은 그實現의暫間이 無意識的이라하니 그것은意欲自身이 自我의生의活動의意識生成에잇는까답이라한다. 이러한意味에잇서서도 意欲은感情에서나온것이아니라 感情이意欲의附隨現象인것이明瞭하다 하겠다. 如何間 對象的作用(感覺또는思考)과 自我의主觀的活動(意欲)과 또이 두가지의共同作用(感情)의三要素가 意識過程全體를形成하는것이라한다. 이러한關係를 「投石」에比較例示컨대 우리가돌을던지면 隨性の形成에잇어서의 石의作用 精力의0에잇어서의投石者의活動 及이二要素의共同作用으로서의飛揚狀態의三面이잇을것이니 이飛揚狀態는곳사람의意識狀態와같은것이라한다. 그러나사람은 石(無生物)의運動이 一義的이요同形的과달나 그活動이多義性과異形性을가진것임으로 그外形뿐만안이라內面的狀態를 深察하지않으면안될 것이다. 우리의既得體驗의內面的狀態는 現在의對象的作用에依하여 再生한다 그리고 現存의對象的作用은 또한再生된內面的狀態의意味에서體驗된다. 우리의活動의多樣성은 곳이過去體驗에根據한다. 이體驗內容으로말하면 諸多表象의複雜한結合에不過한것이니 그러므로 모든事物은 다른事物과의關係에잇서서 비로서把握할수잇는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過去經驗의再生은 現在의對象作用과結合하여 個人的으로또는 種族的으로 어떤心理傾向을이룬것이니 이것은곧衝動과本能이라고할수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心的狀態는各個人의天性(Disposition)을形成한것이니 天性이란것은 곳이러한心的傾向을말한것ियो 一狀態에서 對象的作用에依하여 現出한他狀態에로의過程에不過한 것이다. 換言하면 이天性은 主體의活動성이 언제는知또는情으로 언제는意로나타나게한 意識의可能性을形成한 것이다. 그러므로對象的作用은 이天성을形成하는源泉이되는것ियो 거기에또第二天성을 形成하게된다. 그리하여自我는 곳이天性的全一的組織體에不過한 것이다. 이第二天性이라함은 곳習慣(Cewoehnung)을말한것이니 習慣的의行動은 意的努力을要치않은것임에 習慣과意欲은區別될것이로되 本來習慣은意志過程에서生成한것임으로 自我의生의活動過程上에는 結局同一한것이라고볼수받게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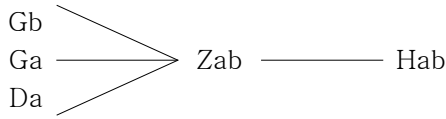
主觀的基礎에서純粹한可能性으로서나온 이天性은漸次習慣성을構成하고 諸多의對象의不佳容에依하여나러난各種의生의活動과綜合하여 여기에自我의發展을形成한다. 그리고이過程에잇어서는 努力 奮鬪 注意緊張等 即 Narzip Ach가 이룬 바 「第一意志作用」(Primaere Willensakt)의諸多活動現象이 意識이第一線을構成한다 그리하여 意的活動이反復됨에따라 習慣성을形成하게되는것이니 이러한過程이곳自我의發展過程이다. 그러므로 氏는 意志를 發展擔持者(Entwicklungstraeger)라고도하엿든것이다.(S. 58.)

이제그發展過程을 좀더詳細히考察하건대 習慣성이形成됨에는 天性和對象的作用과의間에 二種의可能性이잇으니 一或은多의天性和 一或은多의對象的作用의間에 그共同作用에依하여 새로운習慣성이漸次形成되는 것이다. 이對象的作用을G라하고 天성을D라하고 二要素의共同作用을Z라하고 行動을H라하고 또그性質的係數를a라는符號로써 이過程이單一形成을圖示한다면 이러케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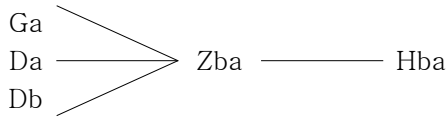


이러한發展過程의關係를 幼兒의活動에實例示하건대 空腹을느껴 이空腹을充足하려는傾向또는氣分을갖게될것이니 이것을 Da라고表示하면 이要求充足을爲하여努力을할것ियो 여기에牛乳를주면 兒孩는滿足을얻을것이니 이牛乳를 Ga 로 또滿足을 Za로表示할수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活動이여러번反復함에따라서 곳習慣성의形成하여 그때에는努力없이 牛乳瓶만보면 이活動이 체질로이러나게될 것이다. 이우에兒孩가 菓子를먹고空腹의滿足을 얻게된다면

D와G의關係는이러케될 것이다. 卽



그리고 또 兒孩가 牛乳瓶을가지고노는遊戲衝動에나온것이라면 D와G의關係는 이리케될 것이다. 卽



이와갓치하여 對象的作用과 天性과의間에는 一或은多의複合的關係를갓게되어 意識發展을形成한다. 더욱이것을 圖示說明한다면 이와갓치될 것이다.

Za=牛乳를마셔얻은滿足

Ha=牛乳를마시는行動

Zb=菓子가지고遊戲하므로얻은滿足

Hb=牛乳瓶을가지고노는行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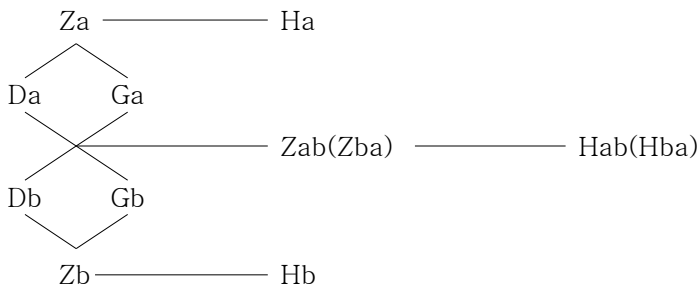
Zab=菓子を먹고얻은滿足

Hab=菓子を먹는行動

Zba=牛乳瓶을가지고遊戲함으로얻은滿足

Hba=牛乳瓶을가지고노는行動

이러한表로써 圖示한다면



이러한複合關係가 天性의多기卽 Dc, Dd, De, Dd…… 에따라 또對象的作用의多歧卽 Gc, Gd, Ge, Gf… 에따라 複雜한意識現象을이루고 이어內面의生活은더욱더욱深化되는 것이다.

以上으로써 氏의研究는맞친것인데 勿論氏의獨創的論究의豊裕함을讚揚하야 마지않거니와 더욱히氏의이러한見解의根據가 氏의指導敎授이엇든 F. G. Lipps博士 (Zuerich 大學)의學說에잇어든것을附言하고 最後로 以上論述의總

目次를 參考로 掲載하여두는바이다.

一. 序 論

研究의對象

A. 對象의意志說

1. Herbart

2. Muensterberg

3. Ebbinghaus

B. 主情의意志說

4. Wundt

C. 努力意志說

5. Jodl

批判的警見

二. 實驗的研究

方法論及研究規定

A. 實驗者의行爲

B. 實驗結果

C. 實驗者의陳述

D. 實驗結果의說明

三. 理論的考察

A. 直接所與

B. 意識內의主觀的의活動의出現

C. 自我의生의活動의意識生成으로서의意欲

D. 發展過程으로서의意志過程

以 上.